

집값 내리는데 가계부채는 1500조... 'R의 공포' 엄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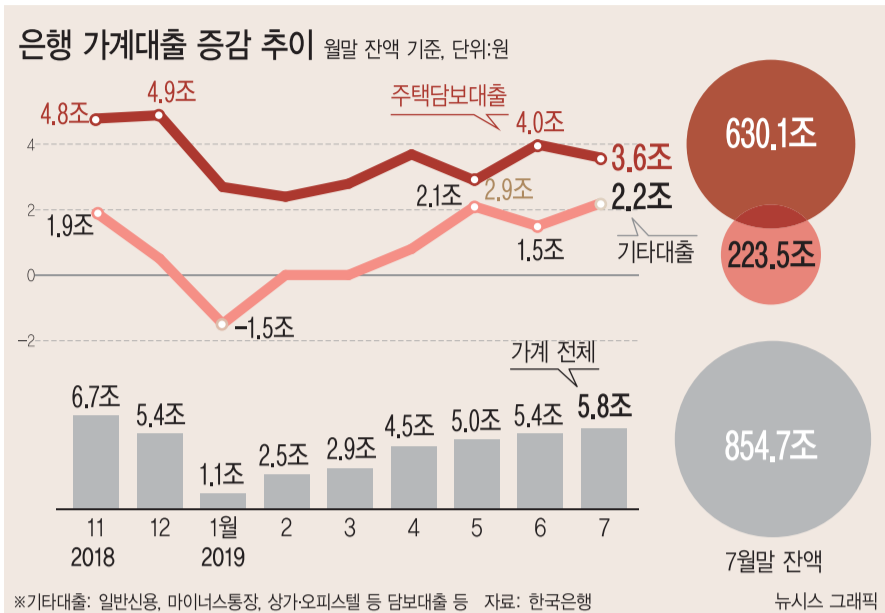
(경기침체)

지난달 5.8조 ↑... 증가폭 커
경제성장세보다 빠르게 늘어
빚부담 '부채 디플레이션' 우려
물가 상승률·성장률 하락 야기

올 2분기 가계대출 잔액이 1470조원 안팎으로 늘었다. 'R(경기침체)의 공포'에 부동산 등 자산가격은 하락하면서 빚 부담은 증가하는 '부채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18일 2분기 예금은행과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이 전 분기 대비 15조4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1분기 말 전체 가계대출 잔액이 1451조9000억원이었으므로 2분기 말 잔액은 1467조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가계대출에는 예금은행·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대출과 학자금대출 등 '기타대출'이 포함되는데 기타대출이 아직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탓이다.

가계대출은 정부 규제와 주택 매매 감소가 맞물리며 지난 1분기 3조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하지만 2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1만3919호로 지난 1분기(5450호)대비 2배 이상 증가하고, 자금수요도 규제가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대신 기타대출에 몰려 2분기 증가세가

15조4000억원으로 커졌다.

7월 들어서는 대출 증가세가 더욱 거세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7월 한 달 새 5조8000억원 늘어 5월(5조원)과 6월(5조4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컸다. 이런 추세라면 가계대출 잔액은 곧 15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가계대출은 경제성장세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있다. 2분기 가계대출은 작년 동기 대비 4.1% 안팎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3.0%)과 가계소득 증가율(3.9%)보다 높은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R의 공포 속에서도 부동산 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 고성장·고물가에서는 부채 증가가 상대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자리도 많고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져 실질적인 부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하지만 침체 상황에서는 주가와 부동산

등 자산가격은 하락하는데 물가 상승률이 너무 낮아 실질적인 빚에 대한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 특히 가계는 빚을 갚기 위해 자산을 매각하거나 소비를 줄일 경우 물가는 더 낮아지고 민간소비가 감소한다.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데 빚 부담은 늘어나는 '부채 디플레이션'이 나타나 물가 상승률과 성장률이 다시 낮아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최근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부채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시금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 발표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2일 서울의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2% 올랐지만 상승폭은 전주 0.03%보다 소폭 줄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제조업 부진은 ‘지구촌 공통 현상’ 보호무역 영향으로 글로벌 침체”

한은 해외경제포커스

4년전 중경기둔화 때보다 악화

최근 글로벌 제조업 생산 부진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둔화 정도가 지난 2015년 중국 경기 악화 당시보다 더 나쁘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중 무역분쟁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된 영향이다. 우리나라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18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 '최근 글로벌 제조업 생산 부진 현황과 배경 및 시사점'에 따르면 글로벌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부터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글로벌 제조업 생산 증가율(전년 동월 대비)은 지난 5월 1.3%로 글로벌 금융위기 후 두 차례 있었던 제조업 수축국면의 최저 수준에 근접했다.

2010년대 이후 글로벌 경기수축국면을 보면 2011년부터 2013년 2월까지(수축국면1)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0.5%로 유럽 재정위기 등이 영향을 미쳤다. 2014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수축국면2)는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0.9%까지 떨어졌다.

경기수축 속도는 더 빨라졌다. 지난 2017년 12월 이후 최근까지 산업 생산 증가율의 월평균 하락폭은 0.16%포인트로 중국 경기가 나빠진 수축국면2(0.11%포인트) 때보다 하락폭이 1.5배 높았다.

지난달 기업의 생산 업황을 나타내는 글로벌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5를 기록했다. 이는 유럽 재정위기 당시의 저점(48.8)보다 높지만 중국 경기둔화 시기의 저점(50.2)보다는 낮다.

최근 글로벌 제조업 생산은 교역·투자와 연관성이 높은 품목, 국가에서 부진을 주도했다.

업종별로 보면 기계장비 생산 증가율이 글로벌 투자 축소 등으로 지난해 1분기 이후 크게 하락했다. 경기동행성이 낮은 자동차도 친환경 생산체제 전환에

따른 생산차질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크게 부진했다.

가공단계별로는 소비재가 확장적 거시정책, 고용 여건 개선 등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인 반면 자본재·중간재의 경우 PMI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주요국들의 생산이 동시에 부진했던 과거 수축국면과 달리 최근 수축국면에서는 유로지역과 일본의 둔화세가 뚜렷한 양상을 보였다.

이 같은 글로벌 제조업 생산 부진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교역위축(무역경로)과 투자감소(불확실성 경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과 신흥국간 분업체계가 약화도 교역, 생산을 더욱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은은 세계경제 여건을 보면 최근까지도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지속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글로벌 제조업 생산은 당분간 부진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지난 6월 말 개최된 G20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추가 관세 부과 발표, 환율조작국 지정 등 미·중 간 무역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 합의 없이 유럽연합(EU) 탈퇴)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다.

한은은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기조가 기업들의 대체국과 자국으로의 생산 공장 이전 등으로 글로벌 공급체인의 조정을 수반할 경우 제조업 생산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다국적기업의 경우 향후 투자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제조업 생산 부진이 보호무역 기조 강화, 글로벌 공급체계 약화 등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 시계에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희주 기자 hj89@



청문회 위해 주말 출근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르면 이달 말께 진행될 예정이다.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당장 눈에 띄는 결격사유가 없는 만큼 이번 청문회는 최근 불안해진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문제 등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 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10대 그룹 영업익 반토막... 현대차 '방긋'

(상장사)

상반기 영업익 총 21조2977억
현대차 3.4조... 38.55% 증가

올해 상반기 10대 그룹 계열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18일 대기업집단 전문 데이터서비스 인포비스가 10대 그룹 계열 90개 상장사(금융계열사 제외)의 반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올해 상반기 별도기준 영업이익은 총 21조2977억원으로 전년 동기(45조8189억원)보다 53.5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분기 영업이익은 8조1093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21조9189억원)보다 63%나 줄었다.

10대 그룹 상장사의 영업이익률은 올해 상반기 6.59%로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2분기만 놓고 보면 지난해 12.98%에 훨씬 못 미치는 4.95%로 떨어졌다.

그룹별로 보면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늘어난 곳은 현대차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 두 곳뿐이다.

한화그룹은 한화케미칼(-71.87%)과 한화(-63.90%)의 부진 속에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118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4341억원)보다 72.81% 감소, 10대 그룹 중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삼성그룹의 영업이익도 23조2704억원에서 7조9443억원으로 65.86%나 줄었다. 글로벌 반도체 경기 하락으로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69.91% 급감한 영향이 컸다.

한진그룹의 영업이익은 3701억원에서 1367억원으로 63.07% 줄었다. SK그룹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13조3642억원에서 61.13% 줄어든 5조1942억원으로 집계됐다. 삼성그룹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경기 부진으로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83.93%나 줄어든 영향이 컸다.

이 외에도 롯데그룹(-32.01%), 신

세계그룹(-30.66%), LG그룹(-22.82%), GS그룹(-21.99%)도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 감소율을 기록했다.

반면 현대차그룹은 기아차와 현대차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한 데 힘입어 그룹 전체 영업이익도 늘었다. 현대차그룹 영업이익은 지난해 상반기 2조4559억원에서 올해 3조4027억원으로 38.55% 증가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영업이익(2335억원→2869억원)도 한국조선해양의 흑자 전환 등에 힘입어 22.87% 늘었다.

한편 올해 상반기 10대 그룹 상장사의 전체 매출액은 323조3160억원으로 3.10% 감소했다. SK그룹(-18.38%), 한화그룹(-14.24%), GS그룹(-8.64%), 현대중공업그룹(-7.00%), 삼성그룹(-6.63%), 롯데그룹(-3.84%), LG그룹(-0.11%) 등 7개 그룹이 역성장을 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